

## 「聖學十圖」의 중국 頒傳\*\*

—1569년 聖節使 書狀官 西厓 柳成龍에 의하여—

權 五 鳳\*

### I

聖學十圖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한·중·일·미 4국의 학자에 의하여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찍이 퇴계의 성학십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 시대의 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고, 퇴계 몰후 끊임없이 주석하고 분석하고 解義하고 응용한 微妙難澁한 학계의 연구 과제였다.

금장태 교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성학십도에 대한 논의와 주석을 하거나 十圖를 응용하고 圖를 그린 학자만도 33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에서는 퇴계의 문인인 艮齋 李德弘(1541~1596)과 芝山 曹好益(1545~1609)이 있고, 금세기의 유학자로서는 널리 알려진 四未軒 張福樞, 後山 許愈, 秀山 金秉宗, 省齋 權相翊, 恭山 宋浚弼, 欽齋 崔秉心, 陽泉 丁大秀, 重齋 金槐 같은 분들이라 한다.<sup>1)</sup>

최근에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한 학자로는 국내에 박종홍, 이상은, 김두현, 류정동, 윤사순, 안병주, 금장태 및 書誌的 연구의 윤병태 諸教授가 있고, 국외에도 일본의 友枝柳太郎, 高橋進 교수와 중국의 張立文,

\* 전 포항공대 교양학과 교수

\*\* 경북대 퇴계연구소, 『한국의 철학』 제17호(1989) 게재논문

1) 琴章泰, 「『聖學十圖』 註釋과 朝鮮後期 退溪學의 展開」, 『退溪學報』 第48輯(退溪學研究院, 1985), 6~22쪽.

미국의 Michael Kalton 교수들이 있다.

이들 학자의 연구는 성학십도를 製進한 퇴계의 십도 제작의 목적 규명을 위시하여 譯註解와 敬哲學의 체계 및 천인합일과 理學要訣의 구조 분석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금장태 교수는 구조 분석에 이어 圖의 연구사를 시도하였고, 퇴계 몰후에 있었던 造屏, 作帖, 印本에 대한 刊行史와 경연에서의 강의에 관한 조사까지를 하여, 후세 역대 조정이 유학을 진흥시키고 보급한 내용을 학계에 밝혀 놓음으로써 성학십도가 한국철학사에 끼친 영향과 공적을 살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sup>2)</sup>

## II

이에 성학십도의 내용과 전술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본 논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여 當該 논저를 考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성학십도의 연구에서 아직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중국에의 頒傳과 製進에서부터 初刊 印行까지의 간행 과정에 관하여 논술하기로 한다.

먼저 성학십도를 제작할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면, 태극도설에서부터 夙興夜寐箴까지 읽은 연대와 공부한 요령을 퇴계가 일일이 써 놓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1519년(己卯)부터 1586년(戊辰)까지 50년간의 肄學과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십도 중에서 心統性情圖, 心學圖, 夙興夜寐箴圖 셋을 제외하고는 모두 朱子와 만나고부터 시작되어 주자학을 완전 洞徹하고 난 뒤에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다.<sup>3)</sup>

2) 全上.

3) 李相殷, 『退溪先生 圖說「聖學十圖譯解」』(退溪學研究院, 1982).

拙著, 『退溪先生の 生活實事(예던길)』(友信出版社, 1988), 326~330쪽.

퇴계가 태극도설을 처음 대한 것은 19세인 1519년이고 性理大全 首卷에 있는 이 도설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역 공부를 하고 소학을 읽은 것도 바로 이 해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第一, 三圖의 제작을 위한 학문의 발단은 약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第二 西銘圖, 第四 大學圖(태극도설에는 靜에 대해서만 말하고 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자의 註에 의하여 敬을 보충함), 第五 白鹿洞規圖, 第七 仁說圖, 第九 敬齋箴圖는 모두 주자의 이론을 수용하였거나 그에 의하여 논리를 전개하였으므로, 이것은 23세 때 성균관 유학시 朱子大全을 처음 입수해 읽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겠다.

또 心學圖(第八)에 관해서도 성균관 유학 시절에 황진사로부터 빌어 읽고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第十圖 夙興夜寐箴圖에 관해서는 언제 처음 읽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1558년(戊午)에 26人 88箴·銘·贊을 모아서 古鏡重磨方을 찬집하고 題詩를 읊은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읽고 애송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sup>

특히 주자의 백록동규와 南塘 陳茂卿의 숙흥야매잠은 지금도 도산서원 典教堂에 學規로서 퇴계 친필로 관각하여 걸어두고 있으며, 서원 향례 때에는 讀約하는데 예안향약과 여씨향약에 앞서 동규를 꼭꼭 읽고 있다.<sup>5)</sup> 따라서 후학이 宗師의 箴規를 끊지 아니하고 승계해 오는 것으

4) 『古鏡重磨方』, 退溪先生 編輯, 寒岡 鄭述 後識.

『吾家錄』: <古鏡重磨錄에 「自警屏銘」爲■姪作. 退陶先生. 「屏銘」爲金誠一純作>을 추가한 책, 李正鎬 後識.

5) 도산서원 享禮 때에는 讀約 행사가 있다. 제1일(乙日)에 立齋하고, 제2일(丙日) 正齋日 아침 행사로서 有司(齋, 別任)가 새벽에 香謁을 하고, 朝食 후에 典教堂에서 開坐한 후 分定을 한다. 이 때 院長(首任) 이하 亞, 終, 分獻官은 동쪽에 列坐하고(白鹿洞規, 鄉約이 걸려 있는 아래), 執禮, 祝官, 齋有司, 別有司 및 執事者가 남북으로 나누어 서열대로 堵列해 앉는다. 坐定이 끝나면 齋有司가 洞規와 鄉約을 쓴 帖子를 가지고 獻官 앞에 나아가 공손히 앉아 맨 처음에 백록동규를 읽고, 다음에 예안향약을 읽은 후 이어서 藍田呂氏향약을 읽는다. 이 때는 전원이 꿇어앉아 齋任의 讀約에 따라 이 規·約을 마음 속으로誦

로 미루어 보아서 퇴계 在世時에도 講磨 지침으로 삼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68세 때까지 50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는 이 十圖로서 구조화 되고 도설로서 조직체계화시켰지만, 屏帖으로 粧製를 한 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없을 수 없다.

퇴계는 성학십도의 進筭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자신의 作圖와 선현의 창조를 확실히 밝혀 「昔之賢人君子 明聖學而得心法 有圖有說 以示人 入道之門 積德之基者 見行於世 昭如日星 茲敢欲乞 以是進陳於左右」라 하였다. 그리고 12월의 엄동에 70 고령의 隆老로서 손은 떨리고 눈은 어두워 行字 均排가 准式치 못하였으므로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서 쓰이고, 經筵官들의 論訂을 가하여 差舛된 점은 補足하도록 乞奏하였다. 그리고 精寫한 후 正本을 만들어 해당 司曹에 맡겨 御屏 一坐를 만들어서 淸燕之所에 퍼두게 하고, 따로 작게 粧帖을 만들어 靑安 위에 놓아두고 상시로 俯仰 觀省 警戒하라고 왕에게 당부하였다.<sup>6)</sup>

入道之門과 積德之基로서 선조에게 성학을 밝혔고, 심법을 얻게 하려고 십도를 製進하여서는 잠규삼아 공부하도록 병첩을 제작시킨 것은 참으로 효율적인 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造屏 작첩과 활용 및 효능에 대한 실험은 퇴계 자신의 경험으로 얻은 결과로서 왕에게도 권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말하거니와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 글씨나 文圖를 가지고 병

---

讀하며 儒生으로서 깊이 새겨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시간은 꽤 오래 걸리지만 靜坐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執事들이라도 엄숙한 분위기에 몰입하여 잘 견뎌낸다. 讀約이 끝나면 罷坐하여 헌관은 전교당 서쪽의 원장실에, 촉관과 집례, 유사는 東齋인 博約齋로, 집사는 西齋 弘毅齋로 정해진 처소에 간다. 齋任의 그 후 행사는 생략하고, 다음 讀約은 제3일(罷齋日·丁日)에 있다. 丑時에 釋奠(제사)을 드리고 <절차는 생략> 조식 후에 제2일 때와 같이 전교당에 開坐하여 <이때도 前日과 같이 앉는다> 飲福禮를 올린다. 禮가 끝나면 다시 자리를 바로잡고 讀約을 한다. 讀約이 끝나면 이로써 享禮를 마치게 되고 罷坐한다.

6) 『退溪先生文集』, 卷 7, 「進聖學十圖筭并圖」, 張4~9.

풍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림이나 금박지로만 造屏한다.<sup>7)</sup> 그들이 임란 이후 우리 문화를 박래품으로 직수입하고 모방하였지만 書屏 문화는 본뜻 것이 없다. 일본인은 오늘날 우리 반도를 거쳐 유입된 문화를 바르게 설명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隋唐으로부터 도래하였거나 遣使에 의하여 수입한 것으로 개작해 가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병문화는 아직까지 없다. 그들 말대로 중국으로부터 모든 문화가 東漸 유입하였다고 한다면 중국에 서병문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에 서병이 없다면 중국에도 서병문화가 없었기에 일본이 전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병의 土俗은 일본에 싹들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까닭은, 임란 때 저렇듯 문화 침탈이 심했음에도 왜군은 병풍을 보지 못하였고, 또 가져 갈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병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환언하면 16세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서병은 대중적으로 실용화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나 궁중내에 설치한 聖學十圖 屏風 一坐 이외에는 없었다고 推斷할 수도 있다. 兵火로 말미암아 燒燼된 십도병은 왜적의 눈에 띄었을 리 없고 민간에 그 類를 찾아 볼 수 없었으므로 일본에 전래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서병은 임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하지 않았던 물건이다. 이에 대한 깊은 연구는 다른 분야에서 할 것이므로 줄이거니와 십도 조병은 꽤 흥미있는 연구 과제이다. 퇴계가 64세(1564년·甲子)때 읊은 「端居」시의 註에는 병풍 이야기가 나온다.

耕也無端餒自纏	柴門常覺畏人偏
杯停六藝難知味	屏玩三圖未契天

7) 일본에 書屏이 없다는 것은 동경교육대학의 金子孫市 교수와 筑波大學 高橋進 교수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전자는 한국의 모교수가 십도를 보내어 필자를 시켜 造屏 傳達할 때 직접 들은 이야기이고, 후자는 퇴계학연구원이 제작하여 제8회 퇴계학국제학술회의장에 전시할 때 高橋 교수와 여러 일본학자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竹入窻中存性命      梅歸春末誤風烟  
 箇中所樂知何事      靜對遺經獨喟然  
 家有六藝杯 有短屏 寫河圖 洛書 太極圖 所居地寒 藏竹以窻 梅至暮春乃  
 發 <端居>8)

이 시에 의하면 퇴계가 기거하고 있었던 寒棲庵(‘家有’ 운운이므로 도산精舍나 계상서당은 아님)에는 河圖와 洛書, 太極圖를 각각 그린 작은 병풍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퇴계가 그려서 만든 것인 타인이 만든 것을 수입하였는지 註에 밝힌 바가 없어 더 이상 알 수 없으나 그 때까지 서병 또는 易象圖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短屏은 퇴계가 제작한 것이고 서병의 단초인 동시에 성학십도의 모체로 되는 것이다. 아무튼 퇴계가 선조에게 병풍을 만들라고 권할 때 이미 그는 학문의 진수를 축약 圖化하여 병풍을 만들어 그를 들여다 보며 潛心 연구한 체험가임을 증언해 준다. 결국 성학십도 도병은 퇴계의 실험적 소산물이고 최초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이제 성학십도의 製進과 印刊에 관하여 논할 차례가 되었다. 십도의 제진 일자는 두 가지로 전한다. 퇴계의 연보에는 1568(戊辰)년 12월 16일(庚寅)로 기록하였고 선조실록에는 12월朔 1일로 적혀 있다.<sup>9)</sup> 필자가 쓴 生活實事에는 12월 1일로 설명하고 16일설을 ( )로서 附注해 두었으나<sup>10)</sup> 근간의 퇴계家年表에는 12월 16일 條에 연보 기록을 취하여 修譜해 두었다.<sup>11)</sup> 십도 제진과 筭子 附署의 시차가 있었는지 아니

8) 『退溪先生文集』, 內集 卷3, 張57.

拙著,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 浦項工科大學 教養學部, 1989, 111쪽.

9) 『宣祖實錄』, 卷3, 張39, 朝鮮王朝實錄 通卷 21冊, 220쪽에 所載.

10) 拙著, 前掲書 「예던길」, 330쪽.

11) 拙著, 『退溪家年表』 驪江出版社, 1989, 536쪽.

면 실록 편찬 때 임의로 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퇴계가 올린 筓子(進)에는 병첩을 만들라는 말은 있어도 간행하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선조는 12월 26일에 병첩을 만들도록 하명하고 또 여러 신료에게 頒帙을 위하여 印刊케 하고 夜對 때에는 進講하도록 명하였다. 이러한 경위는 손자인 蒙齋 李安道の 「蒙錄」과 학봉 김성일의 「實記」에 소상히 적혀 있다.

戊辰十二月二十六日 命以所上聖學十圖下政院曰 此十帖 作屏風以進 又一件體小作帖以入可也 傳曰 卿所上十圖 甚切於爲學 謹當作屏 展於左右以自警焉 <蒙錄><sup>12)</sup>

進聖學十圖 上乃命作屏 又印頒羣臣 後上嘗於夜對 令進講是圖 侍經幄者 莫有能闡明其義者 皆以不知對 遂不果講聞者 莫不恨之 <鶴錄><sup>13)</sup>

를 이해 못하여 밝혀 進講할 수 없었다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夜對 進講은 퇴계가 서울을 떠난 己巳年(1569) 3월 4일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월 11일 야대 때에 홍문관의 具思孟, 辛應時, 趙廷機, 尹承吉, 洪渾 등이 성학십도를 가지고 들어가 진강하려 해도 그들은 학문이 精深치 못하여 진강할 수 없다고 아뢰면서 ‘퇴계가 在京中에 下問했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한탄한 내용이 堂后日記<sup>14)</sup>에 있는 것을 보면 조병보다 진강은 늦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印刊 사업은 퇴계의 낙향 중에 계속된 일이라 하겠다.

선조가 印刊을 하명한 典據는 오직 학봉의 실기에 적힌 위의 기록밖에 필자가 읽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삼는다. 그 밖에는 퇴계가 손자 안도에게 보낸 家書에서 片片 掇拾 정리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12) 『退溪先生言行通錄』, 卷4, 張14, 後面, 蒙錄.

13) 全上, 鶴錄.

14) 全上, 張 14~15, 堂后日記.

## 퇴계가 서울을 떠난 7일 후의 당후일기에는

己巳三月十一日 傳曰 夕玉堂持聖學十圖……況館中 時未及校正 何敢易言

이라 한 기록이 있다. 이에 의하면 홍문관에서는 교정을 11일까지 미처 끝내지 못한 것 같다. 퇴계가 귀향 도중인 3월 16일 단양에서 보낸 手札에 의하면 대사성 고봉 기대승을 통하여 政院과 홍문관에 연락을 하게 하였고 元本과 印刊 對校는 손자와 潛齋 김취려를 시켜 하도록 하였다.<sup>15)</sup> 이러한 사실들로 추정한다면 퇴계가 귀향할 때는 이미 간행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 과정에 있었던 일은 家書에서 그 편린을 수습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성학십도의 간행과 이해를 하는데, 또 今後 십도를 모사함에 있어서도 퇴계의 뜻을 계승하는데 필요하겠기에 몇 가지 소개해 놓고자 한다.

- ① 第一圖(太極圖)之病 將爲時學誤入之階梯 爲恨耳 (『陶山全書』四, 「答安道」, 301쪽)
- ② 圖印一張 來者校送 但 其句點 兩圈處 必皆因元本 誤圈處而兩加之 不知元本是何本 乃有此多誤耶 可怪 畢刻後 改作小樣 固知爲難 故已告而精難改之意矣<sup>16)</sup>
- ③ 其上下兩傍 隋音吃狹而長也作之圈 體小而相去之 間疎體小故 其中填字 不得不小 間疎故看玩之際 目力散漫 不相聯屬 此圖最不善作 可恨<sup>17)</sup>
- ④ 今他圖 旣難從小改作 得改此一幅 幸矣 如欲改之 只依心經本圖模樣而作 稍展而大之 使與諸圖之體相稱 則必無如前之失矣 此則不須煩白於諸公 只汝與而精(金就礪)中 招李明光以吾言 詳細指教 使之改刻 宜無所不可也 若明光託以難自爲之 乃告於外 館主掌官而圖之 亦可也<sup>18)</sup>
- ⑤ 十圖之四 已附黃東萊之行去矣 但 其進圖筭子 不并刻耶 不則大欠 須問而處之<sup>19)</sup>

15) 『陶山全書』, 3冊, 「與安道孫乙巳」, 217쪽.

16) 『陶山全書』, 4冊, 「答安道孫」, 302쪽.

17) 上揭書 全上.

18) 全上.

- ⑥ 十圖未來者二張 而精寄來 故校堪送還 但 筭子最末一張 今亦不來 何耶 既已畢刊 一時送來 校去則可<sup>20)</sup>
- ⑦ 十圖末一張 雖不送來 別無疑難處 須令而精 或汝持進于奇承旨大升 堪過後 印出爲當 不可每 以校正之故 千里往復 以重延退也<sup>21)</sup>
- ⑧ 十圖 而精力圖印粧而送 感荷不可言<sup>22)</sup>
- ⑨ 十圖 已粧入啓否 金而精印粧一件 又送三處 其意甚勤<sup>23)</sup>
- ⑩ 十圖 改作小樣事 金士純(誠一) 欲與禹景善(性傳) 圖爲之 已面言而去 今送小樣影式一張及填書一張 以付士純 今看此與景善 審度可否而善處之 仍須告其不煩 爲佳 士純近當上去耳<sup>24)</sup>

이상의 서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窺知할 수 있을 것 같다.

- ① 印刷은 서울에서 李明光이 맡아서 새기고 초판 인쇄한 것을 도산에 보내어 퇴계가 일일이 교정을 직접하였다.
- ② 처음에는 筭子를 인각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퇴계의 지시로 하게 되었다.
- ③ 進上한 처음 影式과 다른 小樣의 十圖가 있고, 그 영식과 십도에 그려진 篆書(填)는 모두 퇴계가 손수 쓴 것이다.
- ④ 목관각으로 刻字 印刷하였고, 心學圖는 잘 되지 않아서 재차 인각하였다. 이명광의 능력으로 새기지 못하면 외부에 시켜 새기도록 하고 홍문관의 首任이 그러서 새겼다.
- ⑤ 십도중에 마지막 인각한 筭子 한 板의 교정은 고봉이 하였다.
- ⑥ 간행중에 원본과 刷圖의 對校와 印粧 진상 및 연락은 문인 金潛齋가 맡았었다.
- ⑦ 퇴계가 초판 印本을 校閱한 후 수정해 서울에 부치면 손자 몽재가 일일이 고봉에게 아뢰도록 하였다. 그 후 改刻하는 일은 고봉이 맡아 하였다.

19) 上揭書, 「答安道孫」, 303쪽.

20) 全上.

21) 上揭書, 「寄安道孫」, 304쪽.

22) 上揭書, 「答安道孫」, 305쪽.

23) 上揭書, 「答安道孫」, 306쪽.

24) 全上, 「寄安道孫」.

이와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印刊이 끝난 것은 7월 하순이었다. 퇴계에게 올린 고봉의 7월 21일자 서간에는 文昭殿에 관하여 稟議하고, 이어 성학십도의 印刊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하였다.<sup>25)</sup>

인간을 끝낸 십도는 8월중에 楷粧을 하여 병풍을 만들어서 9월초에 도첩과 함께 선조에게 진상하였다.

그리고 선조가 군신에게 십도를 頒賜한 것은 9월 초4일이었고 그 頒賜處는 40餘司였다.<sup>26)</sup>

그 후에 경상감사 鷺渚 李陽元이 지방에도 印刊 반포하기를 퇴계에게 稟하였으나 퇴계가 정지시켰다.

간행된 십도가 판중추부사인 퇴계에게 하사된 것은 이듬해 庚午年 봄이었다. 퇴계가 손자에게 답한 것을 서간으로서 알 수 있다.

十圖頒賜一件 樞府送來 而樞府答狀 但 言受藥不言受十圖 樞府若仇此同  
(下人名) 須以忘未入答之意 通于宋都事 爲可<sup>27)</sup>

이상이 인간과 간행 후의 경과 概況이다. 그 후 追刊과 지방(성주, 해주, 함흥, 영주, 평양, 순천, 남원)刊 및 校書館刊에 관해서는 윤교수의 『退溪書誌의 연구』에 상세하고, 重刊에 대해서는 금장태 교수가 조사 보고하였다. 그에 의하면 병풍, 서첩, 인간은 광해군 2년(1610)과 5년(1613), 인조 원년(1623), 숙종 6년(1665), 영조 31년(1755), 정조 때(1799년) 있었다고 한다.<sup>28)</sup>

#### IV

다음은 이 성학십도가 隣國 특히 유학의 종주국인 중국에는 언제 頒

25) 『高峯全書』, 往復書, 卷3, 張20, 「己巳七月二十一日書」.

26) 前註 9.

27) 『陶山全書』, 4冊, 「答安道孫」, 309쪽.

28) 前揭 琴章泰 教授 論文 註 3.

傳되었던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별로 주목하는 학자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보고된 연구 결과도 없다. 금년 10월에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개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도 퇴계학이 중국에 언제 전래되었으며, 정주학을 재집대성한 퇴계가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인식되었는가에 대해서 연구가 전무하다.

필자가 『退溪家年表』의 기사년 10월조에 ‘성학십도가 중국에 전파되다’하고 수보하였으나 금번 북경대회에서도 십도의 중국 반전에 대해서 論攷가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만시지탄이 있으나, 북경대회가 있는 금년을 넘기기 전에 연표의 보주를 겸하여 이 논문을 급히 기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퇴계학보에는 61집에도 중복 발표를 하였고 또 편집자의 의견도 있어 부득이 해를 넘겨 명년 추계 博約會 학술대회 때에나 발표할까 하던 차에 경대 부설 퇴계연구소장 김광순 박사로부터 17호 연구 논문집의 請稿 惠蒙을 입어 감히 이 소고를 기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허다한 유학자들을 알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학자를 평가하지 않는 탓인지 20세기의 淸朝 이전에는 퇴계를 거론한 典據가 없는 모양이나 전거가 있어도 연구를 않는 때문에 숨겨져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퇴계가 중국에 알려지고, 성학십도가 중국 땅에 널리 반전된 것은 神州 國粹公定國寶 제1호로 결정된 이후라고 국외 국내 학자들은 믿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淸末(1920년경)에 尙德여자대학의 기금 조성을 위해서 십도를 국보 제1호로 公定하고 간행하였다 한다. 신해혁명(1911년) 때 혁명군 수령이었으며 1916년에 제2대 대총통으로 취임한 黎元洪은

中華之所以異於夷狄 人類之所以異於禽獸  
중화가 오랑캐와 다른 까닭이나  
인류가 금수와 다른 까닭이 여기에 있다.<sup>29)</sup>

29) 前掲 拙著 「예던길」, 337쪽.

고 성학십도를 예찬하였고, 또 청말 變法維新派의 대표적 사상가인 梁啓超가

巍巍李夫子 繼開一古今 十圖傳理訣 百世詔人心  
雲谷琴書潤 濂溪風月尋 聲教三百載 萬國乃同欽

높디 높으신 우리李선생님  
옛 잇고 후세 열어 고금을 꿰뚫었소.

열 폭 그림 속에 理學要訣 전하시어  
百世에 길이길이 人心을 열으셨소.

글과 거문고는 주자를 따르셨고  
풍월 같은 그 금회는 염계에 비기었소.

높은 덕성 넓은 교화 삼백년에 미치시니  
온 누리 사람들 뉘아니 공경하리오.<sup>30)</sup>

하고 읊어 십도와 아울러 반포한 이후에 퇴계와 성학십도는 중국에 널리 알려졌고, 퇴계의 학문적 명성이 고양되었다. (이 중국판 十圖를 가지고 온 분은 독립지사 陶庵 丁敦燮이고, 그는 愚潭集을 공자 후손인 孔祥霖에게 보냈다. 퇴계문집과 십도를 가지고 갔다는 설이 있으나 아직 확인치 못하였다).

근년 중국에서 간행한 이 성학십도를 입수하여 퇴계학연구원에서 복사 반전한 이후에 국내 학자는 물론 이를 구독한 외국 학자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청말에 성학십도가 건너간 것이라 믿게 되었고, 중국이 퇴계를 알게 된 것도 이 때부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간행한 성학십도의 원본은 언제 건너간 것이며 누구에 의하여 전달되었을까에 대한 구명은 아직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

30) 同上.

V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학십도는 이보다 약 350년 전에 이미 중국에 전파되었고, 그것도 퇴계의 在世時이며 문인의 손으로 직접 중국의 성리학자에게 전달되었다.<sup>31)</sup>

「西厓先生年譜 卷1, 張4~6의 原典 寫本」



31) 『西厓先生年譜 <己巳·先生三十八歲 十月 以聖節使 書狀官 兼 司憲府 監察 赴京> (이때 正使는 靑蓮 李後白이었다)』.

丙寅登第已巳以書狀官赴天朝太學生數百人來觀公詰中朝僑宗諸生曰王陽明陳白沙公曰白沙見道未精陽明專出於禪當以辭文清為宗有新安人吳京者喜而前曰近日學術汙好士失趨向公乃發正論以斥之可見渡有意於闢異端矣及序立班次有曾道三流立於前列公顧謂諸生曰諸君及登第以冠受甫之外及居彼輩後耶序立於端誠引三流序於使臣之後庭中莫不動色其公訪公於玉河館公以師門聖學十圖示之及還蔡道之以詩若書詩曰已訝玄談開麗日却憐丰茂發陽春萬山川間氣萃鍾吾人不繼道統以弘開濟於一邦若在孔門卽七十其

- ① 西厓先生이 書狀官으로 가서 吳京을 만나고 성학십도를 전한 연보 該條
- ② 西厓先生年譜刊行年度 ; 初刊本 끝에 「今上己巳十月奉安位版于氷山 書院」이라 한 今上은 「重刊本에 肅宗」으로 되었으므로 1689년이다.
- ③ 「陶山及門諸賢錄」의 卷3 張22~23에도 연보의 사실을 요약 轉載해 놓고 있다.

그 때 전한 십도가 청말에 간행한 원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에서 인간한지 11개월 후에 중국에 전달되어 陶山에 낙향해 있는 퇴계보다 오히려 중국 학자의 손에 먼저 반전되었다.

금년 11월 27일에 퇴계학 국제학술상을 수상한 辛冠潔, 蒙培元 교수를 만나 이 사실을 말하였더니, 驚愕罔措하고 중대 사건의 발견이라 하였다. 동석한 한국학자도 그들과 같이 청말에 십도가 중국으로 流傳된 것이라 믿고 있었으므로, 이에 그 출전과 함께 분명히 밝혀 두기로 한다.

1569년(기사) 10월에 西厓 柳成龍은 書狀官으로 聖節上使 靑蓮 李後白과 함께 연경으로 갔다. 그 곳에서 오경(字 仲周)를 만나 학술을 논하고 성학십도 1건을 전달하였다.

서애가 詣闕을 하려고 잠깐 동안 宣治門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몰려든 수백명 太學生들에게 白沙와 陽明의 학문의 이단을 설파하고 薛敬軒(名 瑄, 字 德溫, 諡 文清, 세칭 薛夫子)의 학문을 찬양한 후 설문 청으로 宗師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28세 젊은 서애가 백사·양명학의 융창기에 바로 중국 수도 그 현지

에 들어가 中原 학술의 汚舛를 지적하고 정론을 펴 편벽된 邪說을 꾸짖고 배척하였다. 서애의 자신에 가득찬 논리는 스승 퇴계로부터 전수한 이론이겠지만 그 용기와 기개는 우리나라 유학사상에 높이 평가되고 기록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陶山 문하의 嫡傳中에 큰 한 맥으로 승양 받는 것도 바로 서애의 이 正論 통달과 도산학을 중국에 이입한 이 공적이라고 필자는 보고자 한다.

태학생이 종사로 삼는 중국의 대사상가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배척하고 師門(斯文)의 정확을 유학 종주국에다 역수출하였다. ‘白沙는 道를 보는데 精微하지 못하고, 양명의 학문은 모두 禪에서 나왔으므로 나의 생각으로는 薛敬軒으로서 종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는 간명하며 조리 정연한 논리를 전개하여 오경으로 하여금

요즈음 학문하는 방법이 汚舛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목표를 잃어서 태 학생들의 대답이 白沙와 陽明을 宗師로 믿게 되었다.

고 시인하게 하였으며, 서애의 이단 배척에 공감을 넘어 감복하게까지 하였다. 그리고 서애는 明의 당시 국법이 잘못되었음도 서슴없이 갈파하여 序班과 禮官으로 하여금 고치게 하였다.

詣闕 때 서애가 지적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했다.

서열에 따라 차례로 줄을 섰을 때 태학생이 도사와 중들의 복장을 하고 5품의 서열에 끼어 있는 것을 서애가 목격했다. 서애는 태학생들에게

그대들이 선비의 의관을 하고 저들의 뒷줄에 서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

32) 全上 雙注 參照.

하고 물었다. 이에 태학생들은

국법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서애가 그 말을 듣고 서반에게

우리들이 비록 외국인이라 하지만 예복을 갖춘 신분인데 道士와 중들의  
아래에 설 수는 없는 법 아니오!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서반이 예관에게 말하여 그들을 사신의 뒷줄에  
물러나 서게 하였다. 이 순간 堵列해 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와 하  
였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 사신을 업신여긴 중국 사람들은 東閣  
연회 때에 불량배가 와서 연회장의 음식을 약탈해 가도 말리지 아니하  
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사신이 좌정하면 賤강도가 달려들어 음  
식물을 약탈해 가서 연회가 제대로 끝난 적이 없었다. 이를 알고 있는  
서애는 연회장에 들어서기 전에 서반을 불러

듣자니까 차려주는 음식물이 불량배한테 약탈 당한다던데, 그리되면 황  
제께서 하사한 것이 賤강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도 좋  
단 말이오. 이 점 불쾌하기 짝이 없으니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소.

하고 연회에 참석 않으려 하였다. 그제야 말뜻을 알아듣고 부끄러운 표  
정을 하며, 들어가 예관에게 알리고 얼마 후에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인도하였다. 이날은 지정된 좌석에서 조용히 음식을 들고 무사히  
연회를 마칠 수가 있었다.<sup>33)</sup>

나중에 서애가 묵고 있는 玉河館으로 吳仲周가 찾아와서 은근한 정을

표하였다. 그 때 서애가 印本 성학십도 1건을 보여 주었다.<sup>34)</sup> 기록은 이까지 써어 있으나 그 십도를 보이기만 하고 도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내에는 이미 판각이 있고 인본도 頒賜되었으므로 희귀하지 않으므로 오경에게 선사하였을 것은 현대인의 외교 감각으로도 충분히 이해되고, 서애가 가지고 간 이상 중국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주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리하여 성학십도는 서애의 힘으로 중국 연경에 전달되었다.

서애가 돌아올 때에 오중주는 序를 쓰고 詩를 읊어 진송하였으며, 두분의 교제는 사신과 인편을 통하여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 때 오중주는 송별시를 이렇게 읊었다.

遙持使節謁楓宸	譯語何勞詢問頻
已訝玄譚開麗日	却憐手度發陽春
鵷班鶴立情難訴	鴨水鴻飛恨轉新
別後音書那可得	神嵩夢寐獨傷神

이로써 성학십도의 중국 頒傳이 퇴계 易簣 1년전인 1569년(기사) 10월에 이루어졌다. 시기가 명백하고, 전달자는 서애이며 전수자는 오경임도 분명해졌다.

그리고 진백사, 왕양명의 학문이 융성했던 16세기말의 명나라 학풍과 생활상의 한 모습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퇴계의 理學要訣인 성학십도가 중국 학계에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성리학은 퇴계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중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서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필자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 서애가 다녀 온 이후의 16세기 말엽과 17~19세기의 중국사상사를 천착하고 黜門 계통의 학문을 연구한다면 결코 불가능할 것도 아니다. 이것은 금후의 과제로 삼는다.

33) 同上.

34) 同上.

## VI

서애는 서장관의 임무를 끝내고 귀국하여 충청감사로 청주에 계시는 부친 立巖 柳仲郢에게 覲親을 가서 師門 퇴계에게 귀국 보고를 하였고 퇴계는 이에 답장을 보냈다. 1570년(경오) 4월 하순으로 짐작되는데 퇴계는 답장에서 ‘연경에 간 사람은 많은데도 그들을 만나 논리를 세워 말한 사람은 몇이나 있던가, 公은 數百諸生을 만나 능히 정론을 폈으니 쉽지 않은 일이다’<sup>35)</sup> 하고 서애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오증주에게 情이 가서 서애와 오공이 서로 송별하려던 일이 어긋났다는 글을 읽고 그 점을 퇴계가 자신이 겪은 듯이 못내 한스러워 하였다.

퇴계의 이 답장은 서애를 위로하였을 뿐 아니라 스승의 학문을 陸禪으로 懷襄된 중원 천하에 퍼고 왔음을 크게 치하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는 易箒 8개월 전에 그의 학문이 중국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서애는 28세의 젊은 나이로 先生學을 유학의 종주국에 심고 온 최초의 宣揚 道統 전수자가 되었다.

이로써 퇴계학은 420년 전에 이미 중국 북경에 전달되었고, 또 약 350년 후에 百世詔人心, 萬國乃同欽이라 경앙을 받았으며, 가까이는 대만, 홍콩의 국제학술회의에 이어 금년 1989년 10월 퇴계 몰후 418년 만에 다시 북경에서 宣揚하게 된 것이다.

35) 『退溪先生文集』, 卷35, 張36 「答柳而見」.

「數日前 傳聞好還 不及修賀 而適奉珍緘 來自西原 備悉途中諸況(中略) 今以辱示觀之 京師四方之極 聲名所華 士習學術 汚舛如彼 不知是天然耶 抑人實爲之 以今云云揆前日 尹子固問答 及魏時亮諸說 陸禪懷襄於天下 及如是 令人浩歎不已 然入燕者數多 能遇此等人 作此等話頭者 亦無幾 公能遇數百諸生 發此正論 略點其迷 不易得也 第吳京欲相送 與之相違 是果爲恨事矣 啓蒙翼傳 今始刊於星洲 若後行買來 則其闕板 猶可追補刊也」